

점점 빨라지는 봄꽃 개화시기

<부제: 봄꽃을 2월에 볼 수도 있다고?>



해당 카드뉴스는 기상청과 농촌진흥청이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봄꽃 선수들의 개화 예상 기록표>

구분	개나리	진달래	벚꽃
평년 (1991~2020년)	3. 25.	3. 27.	4. 4.
21세기 전반 (2021~2040년)	3. 19.~3. 20. (-5~6일)	3. 20.~3. 22. (-5~7일)	3. 29.~3. 30. (-5~6일)
21세기 중반 (2041~2060년)	3. 13.~3. 20. (-5~12일)	3. 14.~3. 21. (-6~13일)	3. 22.~3. 30. (-5~13일)
21세기 후반 (2081~2100년)	3. 2.~3. 15. (-10~23일)	2. 28.~3. 15. (-12~27일)	3. 10.~3. 25. (-10~25일)

* 괄호 안의 숫자는 평년(1991~2020년) 대비 개화일 차이("-" 빠름, "+" 늦음, "0" 동일)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개화일

* 기준은 21세기 후반입니다.

고탄소 시나리오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개화일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무려 23~27일 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화일

23~27일 당겨짐

저탄소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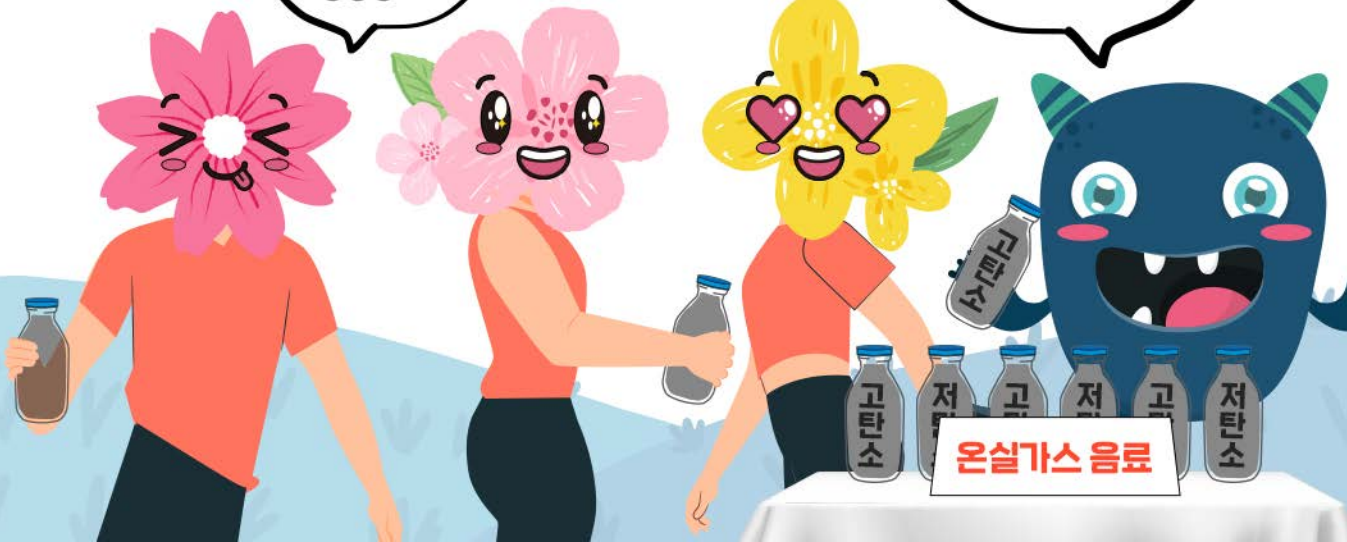
온실가스를 현저히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10~12일 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화일

10~12일 당겨짐

고탄소 음료
GOOD!

꽃이 빨리 피면
꿀을 좀 더 빠르게
많이 얻을 수 있겠지



<21세기 후반 봄꽃 개화 예상 시기>

네! 선수들
출발합니다!

원래 내가
진달래보다 빨랐는데..

힘이난다!
힘이냐!

-25일

벚꽃

-23일

개나리

-27일

진달래

SPEED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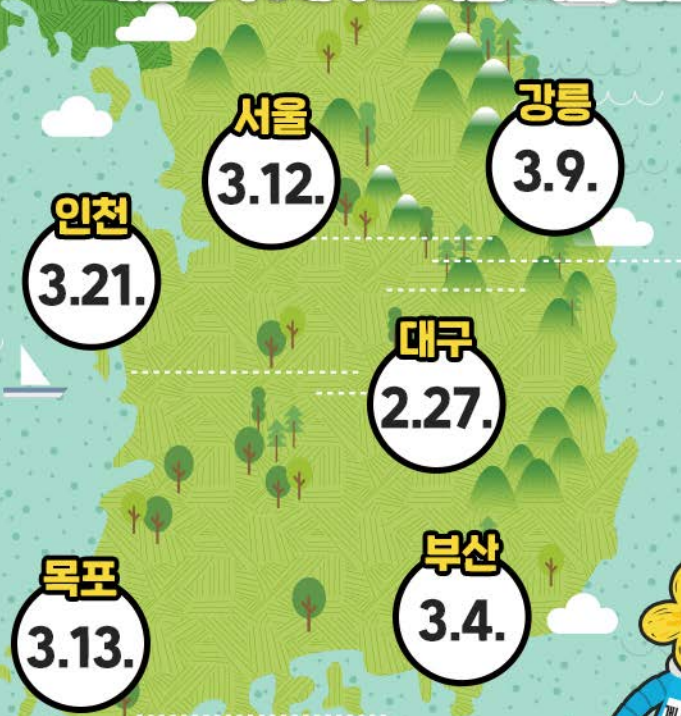
*평년대비(1991~2020년)



21세기 후반,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봄꽃(벚꽃 기준) 선수들의 기록이 대구에서 30일로 가장 많이 당겨지고 서울 27일, 강릉 26일, 부산 24일 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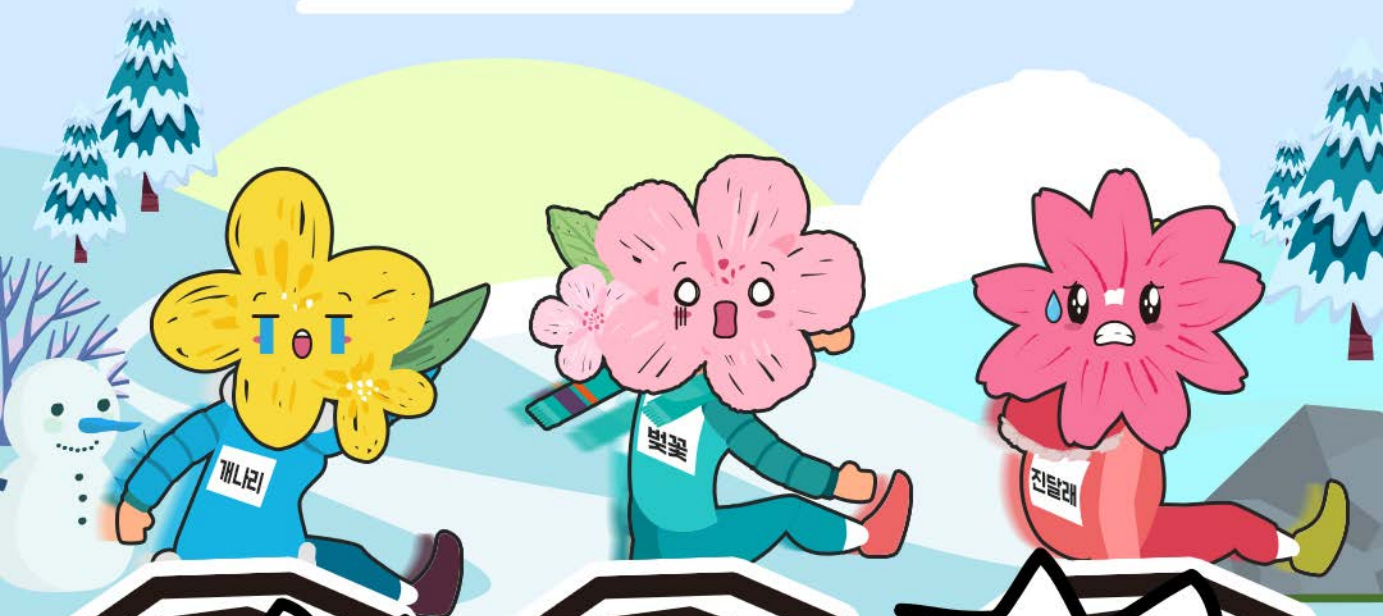
<21세기 후반 봄꽃(벚꽃 기준) 개화 예상 시기>

* 계절관측 6개 주요 지점: 서울, 인천, 강릉, 대구, 부산, 목포





과거 60년간(1950~2010년대) 봄꽃 개화일은 3~9일 당겨진 것에 비해
향후 60년 이후(21세기 후반)는 23~27일 당겨져
선수들의 개화시기 변화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뭔가 이상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

우리 2월에
도착하려나봐!!
이건 아니잖아!

오마이 갓...
2월에 도착이라니...



봄꽃 개화시기가
빨라지면 꽃도
빨리보고 좋지 않을까?

글쎄, 우리는 좋지만,
꿀을 채집하는 꿀벌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대



봄꽃이 빨리 피게 되면, 기온의 변동폭이 큰 시기에 꿀벌들이
채집활동을 하게 된대, 벌통에 머물며 체력을 비축해야 할 시기에
밖으로 나와 활동을 하다보니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각종 질병과
해충에 노출되어 꿀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대

체력 비축해야할
시기인데...

힘들어...

좀 춥네..
피곤해...



또한, 아까시나무 등 주요 꿀을 생산하는 수목의 꽃이 개화하는 시기가 빨라지는 만큼 꽃이 지는 시기도 당겨져 꿀을 채집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꿀벌들이 꿀을 적게 섭취하게 되니,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대



꿀을 많이 얻을 수 없다고..?



아직 다 채집 못했는데..





꿀벌이 우리의 식량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니 우리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될까?

